

#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이 예절수행 및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김 경 아(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장 효 주(숙명여자대학교 석사)

## I.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이뤄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대부분의 일상을 차지하며 친구 관계나 학업성적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의 적응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에 대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스스로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영순, 1994).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은 학업 뿐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은 청소년기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예절의 관계선상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리더십이란 조직 내에서 개인과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김경아, 2010)으로서, 더 이상 특정인만이 가진 생래적 특성이 아니라 누구나 지닌 잠재된 능력이며(Bennis & Nanus, 1985) 교육과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내재된 능력으로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 또래 관계, 이성 관계 등으로 인해 혼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인 동시에 자기 통제의 근본이 되고 자아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Manz and Sims, 1997). 또한 예절수행은 자신이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을 의미(김경아, 2003)하는 것으로, 최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극도의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최근의 학교 교육환경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예절문화의 정립을 위한 교육적 요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긍정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의식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2-0907-0005).”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전략으로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 및 학교생활적응력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라 예절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력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력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응답자가 자기기입식(self-report)으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우선 셀프리더십 척도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된 Manz(1998)의 도구를 번안하여 청소년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절수행 변인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김경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등 총 6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검증 결과 .91의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학교생활적응력은 김채희(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행사참여 등의 총 5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검증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권에 소재하는 인문계,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4월19일~21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 계열을 고려하여 총 32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317부를 회수하였으나 신뢰도가 낮은 1부를 제외하고 총 31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alpha$ ), VIF 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316)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4	39.2	리더경험 유무	유	183	57.9
	여	191	60.4		무	130	41.1
학년	1학년	94	29.7	리더십교육 경험 유무	유	137	43.4
	2학년	162	51.3		무	176	55.7
	3학년	60	19.0	예절교육 경험 유무	유	237	75.0
				무	74	23.4	

합계가 다른 것은 missing data에 기인함

#### 2.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 및 학교생활적응력의 수준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 및 학교생활적응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평균 3.45점, 3.69점, 3.3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시급히 요구됨을 엿볼 수 있다.

<표 2>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 학교적응력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변인	셀프리더십	예절수행	학교생활적응력
<b>M</b>	3.45	3.69	3.35
<b>SD</b>	0.54	0.53	0.56

#### 3.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예절수행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라 예절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라 예절수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예절바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예절수행

예절수행 셀프 리더십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에절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행동적 전략	상	3.88	A	4.24	A	3.74	A	4.07	A	4.12	A	4.23	A	4.02	A
	중	3.38	B	3.80	B	3.45	B	3.64	B	3.78	B	4.02	B	3.66	B
	하	3.05	C	3.48	C	3.21	C	3.25	C	3.42	C	3.84	B	3.36	C
	<b>F</b>	37.69***		28.45***		15.73***		28.74***		22.19***		7.03**		47.41***	
인지적 전략	상	3.93	A	4.30	A	3.73	A	4.12	A	4.11	A	4.30	A	4.05	A
	중	3.33	B	3.71	B	3.42	B	3.57	B	3.74	B	4.03	B	3.61	B
	하	3.06	C	3.54	B	3.26	B	3.28	C	3.49	C	3.74	C	3.38	C
	<b>F</b>	45.90***		33.69***		13.21***		32.44***		17.91***		14.74***		54.10***	
전체	상	4.01	A	4.39	A	3.79	A	4.18	A	4.12	A	4.34	A	4.11	A
	중	3.32	B	3.72	B	3.42	B	3.63	B	3.81	B	4.05	B	3.64	B
	하	3.08	C	3.52	C	3.25	B	3.22	C	3.43	C	3.72	C	3.36	C
	<b>F</b>	52.58***		42.28***		16.58***		40.60***		21.80***		17.38***		67.23***	

\*p<.05,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셀프리더십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M+(SD/2) 이상, 중: M-(SD/2)~ M+(SD/2), 하: M-(SD/2)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 4.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

<표 4>와 같이,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무엇보다 환경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청소년 개인의 셀프 리더십 역량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적응 셀프리더십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행사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행동적 전략	상	3.59	A	3.89	A	3.43	A	3.91	A	3.78	A	3.71	A
	중	3.06	B	3.43	B	3.11	B	3.52	B	3.35	B	3.29	B
	하	2.82	C	3.27	B	2.83	C	3.34	C	2.97	C	3.04	C
	<b>F</b>	27.31***		19.48***		23.73***		19.76***		30.34***		44.20***	
인지적 전략	상	3.58	A	3.96	A	3.51	A	3.91	A	3.79	A	3.74	A
	중	3.02	B	3.39	B	2.98	B	3.48	B	3.25	B	3.22	B
	하	2.88	B	3.25	B	2.90	B	3.41	B	3.09	B	3.10	B
	<b>F</b>	24.75***		28.60***		32.60***		17.33***		25.77***		48.26***	
전체	상	3.72	A	4.00	A	3.54	A	3.95	A	3.86	A	3.80	A
	중	3.01	B	3.43	B	3.06	B	3.49	B	3.29	B	3.25	B
	하	2.84	B	3.22	C	2.83	C	3.40	B	3.03	C	3.06	C
	<b>F</b>	39.32***		30.54***		35.79***		19.29***		32.46***		59.73***	

## 5.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

<표 5>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예절수행	학교생활 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행사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대화 예절	상	3.49	A	3.86	A	3.32	A	3.79	A	3.66	A	3.61	A
	중	3.05	B	3.46	B	3.07	B	3.48	B	3.27	B	3.26	B
	하	2.72	C	3.04	C	2.87	C	3.43	B	3.04	C	3.02	C
	<b>F</b>	24.24***		29.88***		12.18***		9.53***		16.96***		30.82***	
인사 예절	상	3.54	A	3.96	A	3.40	A	3.85	A	3.80	A	3.69	A
	중	3.06	B	3.44	B	3.02	B	3.57	B	3.25	B	3.26	B
	하	2.83	C	3.15	C	2.93	B	3.33	C	3.03	C	3.06	C
	<b>F</b>	26.30***		39.79***		18.10***		17.19***		34.52***		48.18***	
공중 예절	상	3.47	A	3.79	A	3.38	A	4.14	A	3.72	A	3.69	A
	중	3.19	B	3.48	B	3.13	B	3.57	B	3.37	B	3.34	B
	하	2.87	C	3.37	B	2.92	C	3.17	C	3.10	C	3.08	C
	<b>F</b>	14.92***		7.93***		13.95***		71.48***		16.82***		36.18***	
가정 예절	상	3.42	A	3.77	A	3.34	A	3.90	A	3.60	A	3.60	A
	중	3.19	B	3.58	A	3.08	B	3.55	B	3.41	A	3.35	B
	하	2.87	C	3.26	B	2.94	B	3.30	C	3.13	B	3.09	C
	<b>F</b>	15.86***		14.73***		13.35***		27.36***		12.09***		28.93***	
사교 예절	상	3.41	A	3.78	A	3.30	A	4.03	A	3.67	A	3.63	A
	중	3.09	B	3.50	B	3.11	B	3.47	B	3.28	B	3.28	B
	하	3.01	B	3.35	B	2.99	B	3.35	B	3.21	B	3.18	B
	<b>F</b>	7.29**		8.69***		5.93**		33.87***		10.68***		19.91***	
식사 예절	상	3.33	A	3.73	A	3.30	A	3.91	A	3.57	A	3.56	A
	중	3.19	A	3.52	B	3.13	B	3.60	B	3.38	A	3.36	B
	하	2.91	B	3.28	C	2.91	C	3.17	C	3.12	B	3.07	C
	<b>F</b>	7.91***		10.03***		10.96***		41.25***		9.83***		24.65***	
전체	상	3.67	A	3.99	A	3.47	A	4.12	A	3.82	A	3.80	A
	중	3.05	B	3.48	B	3.09	B	3.55	B	3.31	B	3.29	B
	하	2.80	C	3.15	C	2.85	C	3.15	C	2.52	C	2.99	C
	<b>F</b>	36.50***		35.50***		26.05***		69.66***		30.55***		75.14***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처럼 예절수행을 잘 하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음을 볼 때,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예절교육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6.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처음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을 대상으로 할 때 인지적 전략( $\beta=.30$ ), 행동적 전략( $\beta=.29$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28%( $p<.001$ )로 나타났다. 이어서 2단계에서 예절수행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인지적 전략( $\beta=.13$ ), 대화예절( $\beta=.12$ ), 인사예절( $\beta=.21$ ), 공중예절( $\beta=.23$ )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 $p<.001$ )로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은 청소년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표 6>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셀프 리더십	행동적 전략	.50	.30***	.14	.09
	인지적 전략	.52	.29***	.23	.13*
예절수행	대화예절			.65	.12*
	인사예절			.86	.21***
	공중예절			.65	.23***
	가정예절			.23	.07
	사교예절			.53	.08
	식사예절			.19	.05
	상수		41.16		16.10
R <sup>2</sup>		.28		.46	
F 및 유의도		59.40***		32.02***	

\* $p<.05$ , \*\* $p<.01$ , \*\*\* $p<.001$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른 예절수행을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예절을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을 조사한 결과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만족감과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청소년의 예절수행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절수행을 잘 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예절을 잘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대인관계 및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요구되는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예절수행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맡은 바 역할과업을 냉철히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주위관계 속에서 예절을 지킬 때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파악한 만큼 리더십과 예절교육 증진을 위한 학교 내 정규교과과정의 학습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아(2003).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아(2010). 청소년을 위한 ‘봉사과 리더십: 지혜로운 리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II- S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47-163.
- 김채희(2010). 청소년의 스포츠참가와 사회연결망,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순(1994).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Bennis, W. G., & Nanus, B.(1985). *Leaders: The strategies for taking charge*. New York:Harper & Row.
- Manz. C. C. & H. P. Sims(1997). *Super 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by R. P. Vecchio(ed). In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Power and Influence in Organizations*(p.411-421).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이 예절수행 및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최 창 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번 인연은 영원한 인연’인가요? 청소년리더십과 관련하여 작년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초기 청소년리더십 연구를 이끈 van Linden과 Fertman(1998)은 그들이 저술한 「Youth Leadership」이란 책에서 청소년기를 리더십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간주하고, 청소년기에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이루어가고, 위험 행동(risky behaviors)을 예방하며,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그 사실들을 증명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체험활동, 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참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참여가 청소년리더십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김경아 교수님과 장효주 연구원은 셀프리더십이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시되는 예절수행과 학교생활적응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역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토론에 임하니 혹 저의 무지가 드러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페이지에는 이론적배경이나 선행연구 분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연구재단 지원 본보고서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만, 조사도구와 하위영역 설정 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내용은 연구방법에 일부 제시하였지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학회 측에서 원고의 양을 한정된 것은 아닌지요?

둘째, 표집 관련입니다. 조사연구의 생명은 표집이라 판단됩니다. 표집의 대상과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서울, 경기)별, 학교(인문계고, 특성화고)별, 성별, 학년별 배포수와 회수율 등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ANOVA보다는 상관관계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집단을 나누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도구 자체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ANOVA에서 각 집단을 상, 중, 하 3개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신 김경아 교수님과 장효주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